

“수가성 여인의 절망과 희망”

요한복음 4:1-20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너무나도 흡사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다섯번이나 바꾸었고 지금은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만족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 1:2)

이 짧은 한절의 말씀 속에 ‘헛되다’는 말이 다섯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실속이 없다’ ‘비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무엇이 대단해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이 세상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고, 행복을 추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참된 행복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얻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다섯번이나 바꾼 사람입니다. 더 나은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 방황했지만,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도 모른채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번 남편이 바뀐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던지,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지 않는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으러 우물을 찾았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만남이 우연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우연한 기회에 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난 과거의 삶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고 계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참된 행복을 찾아 방황하고 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요 4:12)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 4:13)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 7:37-38)

예수님이 곧 생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되는 분이 아닙니다. 먹고 마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명상이나 이해가 아니라,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요 4:16)

여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허를 찔리고 말았습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가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내면 깊은 곳의 진짜 병은 숨기고 외적인 현상만을 말한다면 근본적인 치유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있던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핵심을 찌르는 질문 앞에, 여인은 정직하게 말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요 4:17)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용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와 자신의 죄를 내려 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죄의 분량’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거룩한 척하며 겉모습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위선적인 모습으로는 결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터뜨리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덮고, 숨기고 넘어가면 그 안에서 썩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아파도 상처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가 진행되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게 되자, 곧 ‘예배’가 떠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마리아의 그리스도에서 예배해야 하나? 아니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해야 하나?”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려 주십니다.
첫째,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요 4:21)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특정 장소’의 개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배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배는 어떤 순서나 의식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설교가 예배의 한 요소이지만, 설교가 곧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설교자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눔의 시간

1. 내가 만약 여인의 입장에 서 있다면,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 겪었던 변화는 무엇이었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3.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둘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떤 형상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자, 주위 환경이 바뀌지는 않았으나, 그녀의 내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1.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 두고 급히 떠났습니다.

사실 여인이 이 우물에 온 목적은 물을 길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물에 온 목적을 잊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목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새롭게 정립되는 것입니다.

2.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그래서 마주치고 싶지 않아 대낮에 우물을 찾았던 그녀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기피했던 사람이 오히려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이나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남편을 바꾼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집을 바꾼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결코 참된 행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와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